더불어 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2026. 11. 25.(수)	보 도 자 료		
	담당 : 박미사 선임비서관	연락처	02-784-3877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25.(수)

김민석 당대표, "불금민생단 "정치·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TF"

불금민생단 성과발표회 개최…12주간 민생과제 2,910건 발굴
핵심 민생과제 당·정·청에 전달…불금민생단 공식사이트 오픈

■ 12주간 민생과제 2,910건 발굴...'전국 공통민심 3대 과제'·'정책제안 Best 5' 선정
■ 핵심 민생과제 당·정·청에 전달...공식사이트 통해 민생과제 기록·공개·해결까지 관리
■ 박지원 단장 "국민 속에서 답 찾겠다"...금귀월래 정신으로 현장 민생정치 지속

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하 불금민생단)'은 오늘(2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불금민생단 성과발표회'를 열고 지난 12주간의 활동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권칠승 정책위의장, 박지원 불금민생단장, 이훈기 간사, 채이배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의 이런저런 기구와 TF가 있지만, 원래 정치가 또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들을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하는 단위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귀월래를 실제로 실천하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박지원 단장과 이훈기 간사"라며 "이훈기 의원이 애써주셔서 처음에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고, 그 활동의 성과를 제안으로 잘 모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Best 5도 발표하고 공식 사이트도 오픈하고, 민원과 정책의 처리 과정까지 공개하면서 당·정·청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민생 해결의 새로운 현장 기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금민생단은 이날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민생과제를 당·정·청에 전달했다.
박지원 불금민생단장은 김민석 당대표에게 ▲국민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농지관리 제도 합리화 및 농민 부담 완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제도 개선 등 '핵심 입법 3대 과제'를 전달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에게도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채이배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게는 ▲부동산 대출규제 현실화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아동 돌봄공백 해소 및 일·가정 양립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및 출퇴근 교통편의 개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돌봄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 강화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등 7개 핵심 민생과제를 전달했다.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현장에서 발굴된 주요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이훈기 불금민생단 간사는 지난 12주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했다.
이 의원은 "불금민생단 활동이 가능한 민주당 국회의원 155명 가운데 매주 평균 102명, 65.6%가 참여했고, 원외 지역위원장도 87명 가운데 매주 평균 28명, 32%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주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전국 공통민심 3대 과제'로 선정하고, 입법·정책·예산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과제는 '정책제안 Best 5'로 선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공통민심으로는 ▲부동산 정책 및 대출규제 현실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꼽혔다.

불금민생단은 '불금민생단 공식 사이트'도 공개했다.
공식 사이트는 전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불금민생단 활동과 현장의 민생과제를 기록·축적해 국민께 공개하고, 지역이나 개별 의원·지역위원장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과 정책제안을 당 전체가 공유해 정부·청와대 및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민생 해결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김남근·김현정·김태년 의원은 이날 '불금민생단 우수정책 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수정책 지역위원장으로는 김태형(서울 강남갑)·박영미 지역위원장(부산 중구·영도구)이 선정됐다.

불금민생단은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전국의 골목과 시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발굴한 민생과제를 당 전체와 공유해 정책·입법·예산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금민생단 공식사이트'를 통해 각 지역의 활동과 민생과제,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공개하고, 지역이나 개별 의원·지역위원장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당 전체가 공유해 정부·청와대 및 관계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훈기 간사는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들은 민심을 당 전체와 공유하며,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생과제는 당·정·청이 함께 해결하는 불금민생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 1. 불금민생단 성과발표회 사진.

문의: 박미사 선임비서관(010-6735-2437)